

작품 내용

제 목	선을 넘은 사진, 바다를 건넌 원고
내 용	작업실에서 연재 칼럼 원고를 붙들고 있던 어느 오후. 출판사 국장님께서 카톡이 왔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질문인간》을 대만의 한 출판사에서 출간하고 싶다는 오퍼가 들어왔어요. 해외 수출이라니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해외 수출?! 수출이라면 공장이나 컨테이너가 먼저 떠올랐다. 내가 만든 것은 컴퓨터 안의 원고 파일이었다. 부피도 없고 무게도 없다. 그 파일이 바다를 건넌다고 했다. 바로 전화를 걸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대만의 어느 출판사가 에이전시를 통해 현지 출간 의사를 밝혔고, 구체적인 조건도 함께 보내왔다고 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기뻐다. 아니, 얼떨떨하다는 말이 더 정확했다. 야, 이런 일도 벌어지는구나.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 책이 대만에서 나올 수도 있대.” 아내는 믿지 않았다. “보이스피싱 아니야?” 해외 출간 소식을 전했는데 아내의 첫 반응은 금융사기 예방. 내가 웃었다. 아내도 따라 웃었다. 돌이켜보면 저작권 때문에 당황했던 일이 있었다.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10년은 족히 넘은 것 같다. 블로그에 경영 칼럼 한 편을 올리면서 인터넷 검색으로 찾은 나무 사진을 붙였다. 척박한 땅에 겨우 뿌리 내린 앙상한 나무. 글 분위기와 잘 맞았다. 얼마 뒤 이메일이 왔다. 그 사진을 직접 찍은 사람이라고 했다. 저작권이 있는 사진이니 내려 달라고 했다. 다행히 화가 난 말투는 아니었다. 당황스러웠다. 거듭 죄송하다 답하고 바로 사진을 내렸다. 인터넷에 공개된 사진에도 주인이 있다는 사실. 몰랐던 것은 아니다. 알고 있는 것과 그 주인에게 직접 연락을 받는 것은 다른 이야기였다. 그 뒤로 인터넷 사진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다. 꼭 필요하다면 사용해도 되는 이미지인지 반드시 확인한다. 그때 내가 배운 저작권은 단순했다. 남의 창작물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규칙이었다. 다른 사람이 만든 사진과 글을 이용하려면 그것을 만든 사람이 정한 선을 지켜야 했다. 대만 출간 제안은 저작권의 또 다른 면을 보여줬다. 출판사를 통해 전달받은

계약 조건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다. ‘중국 대륙을 제외한 전 세계 번째자 사용 지역.’ 괄호 안에는 홍콩과 마카오가 적혀 있었다. 기간은 5년. 대만 출판사는 그 범위 안에서 내 책을 번째자로 만들어 출간할 수 있었다.

내 책을 어느 지역에서, 어떤 문자로, 얼마 동안 출간할 수 있는지가 각각 정해져 있었다. 한국어판과 번째자판은 같은 원고에서 출발했지만 언어와 지역, 기간에 따라 각기 다른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책이었다.

"대만 쪽 출판사도 괜찮고, 조건도 좋아요. 선생님께서 오케이해주시면 오피 승인할게요." 안 할 이유가 없었다.

원래 계약서를 대충 읽는 편이 아니다. 직장 시절 내내 여러 계약을 직접 다루면서 계약 조항 하나하나가 중요하단 사실을 알고 있어서다. 그간 여러 권의 책을 내면서 출판 계약서도 꼼꼼히 읽었던 이유다. 저작물의 2차적 이용에 관한 조항도 여러 번 봤다. 다만 그 조항이 실제 내 일이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오래전에는 남이 찍은 사진 한 장을 생각 없이 사용했다가 내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번에는 누군가 내 글을 번째자로 출간하고 싶다며 조건을 보내왔다. 나무 사진 때는 다른 사람이 정한 선을 배웠다. 이번에는 내 책에도 그런 선이 있다는 것을 체감했다. 저작권은 남의 것을 함부로 쓰지 못하게 막는 데서 끝나지 않았다. 내 창작물을 누가,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용할지 정하는 권리이기도 했다.

계약이 마무리되고 얼마 안 가 선인세가 들어왔다. 대만 출간 계약에 따른 돈이 국내 출판사를 거쳐 원화로 지급된 거다. 새 원고를 더 쓴 것도 아닌데 은행 앱에 입금 알림이 떴다. 저작권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입금 알림은 눈에 확 들어왔다. “이제 외화를 벌어오는 수출역군이네.” 아내가 웃으며 말했다. 내가 쓴 책이 국경을 넘어 다른 언어로도 읽힌다니, 생각할수록 신기했다.

이번 해외 출간 계약 하나로 저작권에 대한 내 생각이 천지가 개벽할 만큼 달라진 것은 아니다. 저작권의 중요성은 오래전 나무 사진 사건을 겪으며 이미 절감한 터. 다만 다른 사람의 글이나 사진을 볼 때 그 뒤에 있는 사람을 또 한 번 더 생각하게 됐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써도 되는지 확인하는 일은 결국 그것을 만든 사람의 뜻을 묻는 일이었다.

아직 《질문인간》 번째자판은 나오지 않았다. 좋은 출판사라고 했으니 어렵히 잘 만들겠지. 책이 완성되면 표지부터 한참 들여다볼 것 같다. 그 다음에는 내 이름을 찾고 첫 장을 펼쳐볼 테고. 내 이름은 알아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내가 쓴 첫 문장은 읽지 못할 것이다. (끝)